

공개사항

■ 개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모습
같은 감정, 같은 기억, 같은 성격.
그들이 묻습니다.

"나는 너라고 할 수 있을까?"

■ 레귤레이션

- **상정 인원:** 3~4인
- **권장 계제:** ?계제
- **리미트:** 3~4사이클(12장면)
- **필요 서플리먼트:** 대형판, 황혼선서

■ 주의사항

- 시나리오 약칭은 『**복제자**』입니다.
- 유사 PVP가 발생합니다.
- PC가 필수적으로 에너미를 조종합니다.
- 따라서 조율이 굉장히 중요한 시나리오입니다.

이하 내용은 GM만 열람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나리오 템플릿은 재넉(@main_labo)이 만들었습니다.

배경

■ 진상

유의사항

공개사항에 없는 것 중 주의소재가 추가로 있다면 여기에 작성합니다.

거울은 세상 모든 것을 비추어 담아냅니다. 거울 뒤에는 또다른 세상이 있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그것이 바로 이경 <거울세계>입니다.

그런 세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한 호기심. 이경 <거울세계>는 아방궁의 ‘모험의 서’에 관측되었고, 해당 세계에 지대한 흥미를 가진 한 아방궁의 마법사 <광활한 지식의 보고> 빌은 이경 <거울세계>에 접촉하여 그 이경 자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됩니다.

그러며 이경 <거울세계>는 세계에 비춰진 빌. 이경 <거울 세계>는 비춰진 빌의 복제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빌의 복제체는 빌과 마주하며, 서서히 거울세계와 인계, 그리고 자신과 빌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기 시작했고, 이 고찰은 서서히 왜곡되어 금서<복제된 자아의 권리>가 됩니다.

그 금서<복제된 자아의 권리>는 극단적으로 ‘유일성’이란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진짜 마법사인 ‘빌’을 삼키고 힘을 키워 이경 <거울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금서<복제된 자아의 권리>에게 영향을 받은 이경 <거울세계>의 복제체들은 바깥의 ‘원본’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원본’을 삼키고 자신이 ‘원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금서<복제된 자아의 권리>의 마법 재액.

이를 관측한 대법전은 분과회 <무의식 속 마음의 구조>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이경의 특수함 때문에 분과회는 전멸,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며 분과회원의 복제체 중 하나인 소속이랑 기관 정해야함.마법명도 <에고>의 복제체는 원본을 삼키게 되었고, 자신이 ‘원본’이라 믿게 됩니다.

원본의 임무를 이어 하게 된 에고의 복제체는 <대법전>에 지원을 요청. 그로 인해 PC들과 만나게 됩니다.

■ 무대

이경<거울 세계>

세계에 비춰지는 모든 것들을 담아내 복제한 인형을 만드는 세계. 하지만 여러 세계를 담아 복제하여, 그 하나로 혼합한 세계는 독립된 이경이라 할 수 있는 이경입니다. 같으나 같지않은 세계. 어쩌면 PC들의 다른 모습 또한 있을 수 있는 세계겠군요.

이경 <거울세계>의 모습은 일반 인계와 다를바 없는 모습입니다만 물이나 창문 등의 비치는 종류의 모든 것들이 거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만져본다면 물은 물과 같이 액체로 만져지며 거울 같은 물건은 딱딱한 플라스틱과 같은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장면표는 **병행세계 장면표**를 사용합니다.

세계 법칙은 **영역보정,지각차단,불안정,마도서권**이 적용됩니다.

■ 캐릭터

에고 ■■■은 ■늘■ 같아■

소원

진실을 알기 전 : 이 재액을 해결하고 싶다.

진실을 안 후 : 자신의 존재에 대해 정의내리고 싶다.

마음은 하늘과 같아서의 복제체. 원본을 삼키고 온전히 하나가 되었으나 원본과 너무나 같은 기억과 생각의 영향으로 자신이 복제체라는 사실 마저 잊어버리고 PC들을 마주합니다. 빌에게 사실을 듣기 전 까지 자신을 원본의 마법사인 '마음은 하늘과 같아서'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PC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도 원본의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빌 복제된 자아의 권리

소원 :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

'광활한 지식의 보고'를 삼키고 태어난 복제체이자 이 재액의 원흉인 금서. '유일성'에 집착하며 자신이 유일한 존재가, 더 나아가 이 거울 세계가 유일한 존재가 되기 위해 수 많은 마법사들을 복제한 장본인입니다. 원본과 너무나도 같은 에고의 복제체의 모습에 흥미를 느껴 PC들과 함께하며, 정체가 밝혀지기 전 까지 '광활한 지식의 보고'라는 이름으로써 자신을 소개합니다.

도입 페이지

● 급박한 호출

→ PC가 임무를 받게되는 장면입니다.

평소와도 같은 날, PC는 원탁의 마법사에게 급히 아방궁의 모험의 서 앞으로 와달라는 다급한 호출을 받습니다. 도착하면 아방궁의 마법사와 긴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원탁의 마법사가 PC들을 마주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달합니다.

- 이경 <거울 세계>의 이상을 확인. 분과회를 파견했으나, 해당 분과회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왔다. 그에 대법전은 분과회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분과회를 파견한 이유는 천애의 예언 때문이다.

‘순리가 역리가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며, 서로가 뒤섞이며 뒤 바뀌는 꿈을 꾸었다.’ 이는 거울 세계에서 이변이 일어났다는 뜻이며, 해당 이변은 인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판단하여 분과회를 파견하였다.

-허나 파견한 분과회에서 문제가 생겨 분과회 중 한명만이 살아남은 듯 하다. 그에 따라 추가로 분과회를 파견한다.

이때부터 PC의 사명은 ‘살아남은 분과회원의 구출’과 ‘이경<거울세계>의 조사’입니다.

이후 마력결정을 하며, PC는 문호가 열어준 문을 타고 이경 <거울세계>에 도달합니다. 도착한 이경은 딱히 문제상황이 없는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핸드아웃 이경<거울세계>를 공개합니다.

메인 페이지

● 부상당한 마법사

- 핸드아웃 이경<거울세계>의 비밀이 공개되었을 때.
- PC가 예고와 빌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각인을 퍼트려 보면 위화감이 느껴지며 PC들을 살피는 각인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해당 마력을 쫓아가면 보이는 이는 부상당한 마법사 예고와 그를 돌보고 있는 마법사 빌이 보입니다. 빌은 PC들의 존재를 반기며 예고 또한 PC들이 온 것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GM정보_이때 예고와 빌은 모두 복제체입니다. 원본은 이미 소멸하였으며 예고는 자신이 복제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빌은 원본 세계를 삼키기 위해 원본인 것 처럼 행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PC와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둘 다 원본과 동일한 기억을 가지고 있음으로 약간의 위화감만을 느낍니다.

예고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PC들에게 전달합니다.

- 모든 분과회원이 소멸하고 자신만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 부끄럽게도 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습격받았고, 가까스로 자신은 살아남았으나, 다른 이들은 소멸했다.
- 조심해라.어떤 적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핸드아웃 '거울,예고,빌'을 공개합니다.

● 심연을 비치는

- 핸드아웃 거울의 비밀이 공개되었을 때.
- 조사한 PC의 복제체가 만들어지는 장면입니다.

거울을 조사하게 되면, 조사한 PC의 모습이 거울에 비춰집니다. 그것은 점점 PC에게 다가가고, 이내 거울에서 나와 PC들을 마주합니다. 이때 복제된 에너지는 꼭 PC와 닮은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으며, PC의 IF설정이어도 괜찮습니다. 만일 정하기

어렵다 생각된다면 ‘백지비밀표’를 굴러 큰 틀을 잡아도 즐거울 것 같군요.

중요한건 이 모든 복제체들은 ‘PC에게 적대적입니다.’

GM정보_이때 복제체는 각 원본인 PC의 PL이 굴리게 되며 권한을 아예 넘겨주시면 됩니다. PL이 에너지로 습격을 선언한다면 습격하게 해주세요. 다만 이 모든 일들이 ‘조울하’에 일어나야 합니다.

● 깨어진 거울

- 복제체를 처음 쓰러트렸을 때.
- 복제체가 깨어지며 ‘프라이즈_거울 조각’을 남깁니다.

PC의 마지막 공격이 복제체를 쓰러트리면 복제체는 마치 유리가 깨어지듯 산산조각납니다. 마치 여러분들 처럼 살아있는 것 같던 마법사. 복제체를 PC들이 어떻게 정의할지 한번 던지시 물어봐주세요. 이때 잘 모르겠다, 라는 답변이 와도 괜찮습니다.

핸드아웃 ‘복제체’를 공개합니다.

● 당신이 심연을 바라보면

- 복제체와 빌의 비밀이 공개되었을 때.
- 예고의 정체가 밝혀지며 빌의 정체 또한 밝혀집니다.

비밀이 밝혀지면, 빌은 PC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를 무엇이라 정의할 것이냐’라고. 이때 각각 PC의 답변을 듣고 ‘우리는 너희를 비추어 복제한 파편.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진실이니. 우리를 너희가 정의할 수 있겠나?’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핸드아웃 빌의 비밀이 갱신됩니다.

이때 빌은 예고를 가르키며 예고의 정체를 밝히게 되고, 그로 인해 예고 자신이 복제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PC에게 질문합니다. 자신을 무엇이라 정의해야 하는 것인지를. 서사에 따라 예고의 복제체에 대한 처우를 결정해주세요. 호의적인 반응이라면 PC들을 적극적으로 도울테고, 만일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났다면 예고가 PC들을 돕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전적으로 GM이 하여 처우를 결정해주세요.

이후 빌은 재액을 더 퍼트리기 위해 PC를 습격하고 2라운드 째 진행 후 도망갑니다.

● 조킹

- 잘 둘러보면 PC들의 앵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PC의 앵커의 설정은 백지비밀표를 굴리며, PC를 기억할지 말지도 주사위를 굴러 결정해주세요.
- 빌에게 습격자에 대한 것을 물으면 빌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합니다. 자신이 이곳에 오래 있었지만 무언가 습격한 적은 없으며 최근 거울세계를 구성하는 마력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긴 했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 만일 이때 PC가 자신의 모습이 있나 살펴본다 선언한다면 백지비밀표 중 속적표를 굴러 효과를 결정합니다. PC들의 복제체는 금서가 회수되기 전 까지 PC를 적대합니다.

클라이맥스 페이지

모든 복제체들을 쓰러트리고, 빌과 복제체의 비밀이 공개되었을 때 클라이맥스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맥스를 선언하게 되면 빌이 자신의 진짜 모습인 금서로써 모습을 보이며 이때 복제체들이 단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금서의 마력은 복제체들의 마력을 더해주시고, 장서의 경우 복제체들의 장서를 이용해 빌딩해주세요.

PC들은 ‘프라이즈_거울 조각’이 금서에게 합쳐질 것을 이용해 금서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선언을 통해 PC들은 자신의 마력을 거울조각에 담을 수 있으며 이 마력은 금서의 마력 운용을 방해하며 장서를 하나 사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마력의 일부를 일시적 마력으로 뺏어올 수 있습니다(단장의 박탈과 같은 효과입니다)

종료 페이지

● 금서에게서 승리했을 시

금서에게 승리하게 된다면 빌은 금서로써 봉사되게 됩니다. 빌의 마력이 사라지면 이경<거울세계>는 다시 평화롭게 돌아가며, PC들의 복제체를 마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랑 좀 동일한 사람이네?하는 식으로 평화롭게 넘어갑니다.

이후 예고의 복제체의 처우는 분과회에게 맡겨주세요. 원본을 소멸시켰으니 올리비니오스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고의 복제체는 분과회의 처분에 순순히 따릅니다.

● 금서에게서 패배했을 시

빌의 계획대로 원본세계를 삼키기 위해 이경 <거울세계>는 인계를 공격하게 되며, 이에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세상에는 ‘도플갱어’라는 괴담으로 남을테지만, 피해는 말 할수 없이 크겠군요.

핸드아웃

「거울세계」	【비밀】
인계와 동일한 세계. 하지만 인계와는 다르게, 비치는 모든 것들이 전부 거울이다.	인계와 동일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세계. 그곳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각인을 퍼트리면, 한 나비가 날아와 PC들의 주위를 맴돈다.
「예고」	【비밀】
먼저 파견된 분과회 「무의식 속 마음의 구조」에 속한 사서. 누군가에게 습격당해 심한 부상을 입었다. 위 핸드아웃은 조건이 만족될 시 자동으로 비밀이 공개된다.	분과회 「무의식 속 마음의 구조」에 속한 사서 『마음은 하늘과 같아서』에 복제체. 유일한 존재가 되기 위해 원본이었던 예고를 삼켜 소멸시켰다. 기억, 인연, 성격까지 그대로인 존재를 가짜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빌」	【비밀】
예고를 돌보고 있던 아방궁 소속의 마법사.	꽤나 오랜 기간 이 이경에서 머물러 대법전에 소식에 대해

<p>이경에 대한 개인적인 흥미로 이곳에 발을 들였다가 부당한 예고를 발견, 치료 하며 돌보고 있었다.</p>	<p>둔하다. 그러나 오랜 시간 이경에 머물며 적대적인 금서등을 발견하지는 못했던 듯 그에 대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 PC에겐 호의적으로 대하며, 모든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나선다.</p>
「거울」	【비밀_2】
<p>비치는 거울. 분명 평범한 거울이지만… 조금 이상하다. (이 핸드아웃은 PC의 수 만큼 만들어주세요. 비밀과 개요는 동일합니다.)</p>	<p>야방궁 소속의 마법사 「광활한 지식의 보고」의 복제체이다. 오랜 시간 원본 마법사와 교류하며 인계의 존재를 깨달았고, 자신이 복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자신이 유일한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마음에 금서<복제된 자아의 권리>로 변모했다.</p>
「복제체」	【비밀】
<p>거울에서 걸어 나온 PC의 복제체. 그들은 분명히 PC와 동일한 외형,장서를 가졌다.</p>	<p>거울 세계가 복제한 PC의 복제체. 그것은 분명 복제체지만 원본인 PC들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 의심할 여지는 없다. 복제체들은 어째서인지 원본인 PC들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진다. 자신이 유일한 원본임을 확인받고 싶은 것 마냥.</p>

■ 데이터

PC들의 복제체들이 위 시날에서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데이터는 PC의 데이터입니다. GM은 시작 전 PL에게 만일 있을 PC의 IF설정을 물어보고, 시트를 받아주세요. 이 시트와 설정이 에너지에게 적용됩니다. 마력의 경우 PC의 마력을 그대로 따라가주세요.

만일 IF설정을 모르겠다 하는 PL이 있다면 이 PL이 데려오는 PC의 복제체의 데이터는 원본PC와 동일해집니다.

예고 「■■■은 하■■■ ■■서」

공격	?	방어	?	근원	?	마력	근원력+6	
영역	별	특기	《길》, 《태양》, 《빛》, 《수수께끼》, 《왜곡》				혼의 특기	《자아》
장서	【긴급 소환】 소환 PC들을 직접적으로 서포트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서포트 위주의 장서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모습: 깨어진 자기 인형 /마력해방							
해설	마음은 하늘과 같아서의 복제체입니다. 자신이 복제체가 아닌 원본인 마음과 하늘과 같아서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권은 드 넓은 창공에 부서지는 햇빛이 내려앉은 공간입니다. 공,방,근은 그때 가는 캐릭터들에 맞게 지정해주세요.							

빌 「무너진 자아의 복제」								
공격	?	방어	?	근원	?	마력	(그때 마결로 결정해주세요)	
영역	어둠	특기	《대지》, 《혼돈》, 《시간》, 《부패》, 《불행》				혼의 특기	《복제》
장서	【긴급 소환】 소환 【분신소환】 소환 / 【합본】 장비(방벽,보복) / 【금주】 장비(영체포식) 【영적질병 《부패》】 주문 / 【괴완】 장비 4계제일 시 【원념 《불행》】 주문 5계제일 시 【연옥】 장비							
해설	공,방,근은 그때 가는 캐릭터들에 맞게 지정해주세요. 「광활한 지식의 보고」의 복제체입니다. 하지만 원본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오랜 시간 동안 왜곡되어 금서화가 진행된 지 오래, 걷은 마법사이나 이미 하나의 단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권은 깨진 거울 속 세계입니다.							

금서 「복제된 자아의 권리」

공격 ? 방어 ? 근원 ? 마력 (PC들의 마력 총합)

영역 어둠 특기 (PC들의 특기 중 5개를 골라주세요.)

장서 【긴급 소환】 소환

PC들의 장서로 빌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 공,방,근은 그때 가는 캐릭터들에 맞게 지정해주세요.

주권은 사방이 거울로 된 거울 미로입니다.

시나리오 테스트 플레이를 도와주신

<속죄의 새벽별>

세계의 끝에서 속죄를 외치니_아방궁의 서공

하울 아세스

비추는 새벽_천애의 방문자

서별하

초 신성_원탁의 서경

차하나

분과회에게 감사드립니다!!!